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출토된 신라 유물.

무주서 신라유물 출토 전북지역 최다 발견

11기의 석곽묘·가야토기 등 발견... 전북지역 신라 진출과정 등 살피는 중요자료 기대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신라 유물이 다량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라유물은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 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함께 전북가야 문화유산 연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 대차리 고분군'을 발굴·조사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총 11기의 석곽묘(돌덧널무덤)와 함께 그 안에서 대부장경호(굽달린목긴항아리), 단경호(목짧은항아리), 개(뚜껑), 고배(굽달린접시) 등의 신라토기, 밀집파상문이 장식된 가야토기, 철검(쇠칼), 철도자(쇠손칼), 철촉(화살촉), 금동이식(금동귀걸이) 등 40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중 가장 많

은 수량의 신라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굴 등의 훼손 흔적이 남아있는 석곽묘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축조방법 및 구조 등은 파악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기 중 2기는 강돌(川石)로 벽체가 축조되고 바닥에 시상대(무덤 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바닥에 마련한 대(臺) 시설)가 없는 반면, 나머지 9기는 깎돌(削石)로 벽체가 조성되었으며 바닥에 잔돌(小石)로 시상대가 깔려있는 형태다.

이번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박장근 교수는 "벽체가 강돌로 축조돼 시상대가 없는 석곽묘는 장수지역의 가야계 석곽묘와 유사하며, 깎돌로 축조돼 시상대가 있는 석곽묘는 육천 금구리 5, 6, 9호, 상주 현신동 2, 4, 6, 8, 20호, 상

주 병성동 8-1호, 30호, 남원 봉대리 7호 등과 비교가 가능해 신라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석곽묘의 구조와 유물로 볼 때,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6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시기 전북지역 신라의 진출 과정과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에서 삼국시대 고분을 발굴 조사한 것은 처음인데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값진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무주군에 묻혀있던 삼국시대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복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정읍의 미술 문화 알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정읍시립미술관 소장품기획전시 '씨 내려가는 겨울' 30일부터 개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오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겨울을 주제로 정읍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씨 내려가는 겨울' 전의 막을 올린다. 이번 기획전시는 2017년 3월 '봄'을 주제로 올렸던 '봄을 보다' 전을 시작으로 두 번째 열리는 소장품 전시로 이번에는 '겨울'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달 23일까지 24일간 열리는 '씨 내려가는

겨울' 전은 '겨울'이라는 주제로, 평면 작품과 서예 작품들을 포함하여 총 15점을 선보인다. 시립미술관 1전시실에서만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전시를 포함해 관람 후 관람객들이 글을 써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드리으로써 정읍의 미술 문화를 알리고 동시에 시민들의 방문으로 미술관이

함께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람료는 무료이며, 일반시민들을 위한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따뜻한 농담 한마디 코너인 '소박한 농담(濃談)'을 운영하여 서예와 캘리그래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seup.go.kr/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감동의 울림’

추억의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내달 1일 부안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군민을 위한 자체 기획공연 추억의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시대 마지막 변사 최영준 선생이 부안군에 와서 보여줄 이번 공연은 1948년에 만들어진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검사와 여선생'이다.

공연 내내 다양한 영화 인물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최영준 선생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변사의 표정과 말에 관객들이 웃고 울며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변사극은 1910년 이후의 격변기에 국권을 잃고 표류하던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일제의 눈을 피해 삼삼오오 극장으로 모여들어 무성영화와 변사의 연기를 보고 들으며, 주인공의 아픔을 시대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랠 수 있었던 시대의 애환을 함께한 추억의 무성영화이다.

이번 공연에서 그 시대, 그 시절 대중들의 슬픔, 희망을 함께했던 변사극을 보면서 시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감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추억의 변사극은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젊은이에게



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어서 부안군이 자체기획한 무료공연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공연에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선착순 무료(모든 연령 관람가)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이옥수 기자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남북 문화유산 교류 전기

지난 26일 오전(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살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돼 온 민속 놀이다.

씨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북한은 우리보다 한 해 전인 2015년 3월에 제출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2017년 3월 신청서를 수정해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무형유산 심사기준은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등재과정에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 등 5개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



한 사회·문화적 의미에 공통점이 있고, 평가 기준이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씨름은 '씨름(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eum/Ssireum)'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됐다.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 북한은 3건 보유하게 됐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